

美國의 9·11 테러참사와 韓國의 안보 (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제전시이사, 政博 崔명상

I 서론

美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었던 지난 9월 11일의 미국의 테러참사에 대하여 그 근본배경을 국제관계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해서 대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테러집단의 민간여객기 납치에 의한 자살공격으로 미국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쌍둥이 건물과 워싱턴시(Washington D.C)에 있는 미 국방성(Pentagon) 건물에 대한 폭파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는 세계경제의 중심적 상징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정치권력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테러공격의 주동자로 알려진 이슬람교의 과격테러주의자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그의 알 카에다 테러조직(Al Qaeda Terror Net Works)은 왜 하필이면 미국에 있는 세계정치권력과 세계경제권력의 중심적 상징을 대상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5,000여명이 희생되는 극악무도한 테러를 미 본토에서 자행하였을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테러에 의한 고통은 미국과 기독교가 인류에 저지른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노예제와 원주민 학살, 십자군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11월 7일 자신의 모교인 조지타운(Georgetown)대학에서 강연했다.¹⁾ 그는 "테러는 수백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다. 우리는 노예제를 기초로 국가를 건설했으며 수많은 노예들이 이유없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땅이나 자원을 빼앗기 위해 원주민들을 죽이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으며 우리는 아직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 첫번째 십자군 원정때 기독교도들은 예루살렘 신전 언덕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슬람교도를 살해했으며 중동지역에서는 아직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9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테러세력은 자유와 인간존엄의 적이므로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 미국 테러참사의 책임을 물겠다."²⁾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10월 7일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시간으로 10월 7일 밤 9시 30분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과 남부 칸다하르, 동북부 잘라바드 등 주요 도시의 군사시설에 대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B-2 Stealth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을 계속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항공기 납치 연쇄테러가 발생한 지 26일만에 미국이 테러의 제1용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탈레반(Taliban)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항구적 자유작전(Enduring Freedom Operations)'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21세기 최초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테러근절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통해 전세계적인 테러조직을 분쇄하는 것만이 미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1월 9일 테러이후 두번째 대(對) 국민연설을 통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우리는 미국이 위대한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미 국민에게 단결과 지지를 호소하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다.³⁾

부시 대통령이 직접 미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회의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위협수위에 이르러 제동을 걸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 국방부도 이날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최고지휘관인 프랭크(General Tommy Frank) 중부사령관을 언론 브리핑에 처음으로 출석시켜 "미군의 공세로 탈레반군이 산산이 흩어졌다."고 발표하



는 한편 라마단 기간중에도 공습감행 계획을 재확인하고 대규모 지상군 추가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날 미연방수사국(FBI)의 테러대책 예산을 늘리고 중앙정보국(CIA)에 군(軍)정보기관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전시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테러공포를 경감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지금 세계의 이목은 아프가니스탄에 쏠려 있다. 미국의 보복공격이 과연 새로운 어떤 형태의 미래전쟁 양상이 펼쳐질 것이며 탈레반 정권이 곧 붕괴할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큰 관심거리이다. 미국이 지원하는 북부동맹군(Northern Alliance)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단숨에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이어서 퇴각을 거듭하고 있는 탈레반의 마지막 거점 칸다하르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탈레반이 철수를 확인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선 파슈툰족 일부 부족들이 봉기를 일으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탈레반의 패퇴는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인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고 알 카에다 테러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데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미 국방장관도 “우리의 제1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테러조직을 색출해 내는 것이며 이번 북부동맹의 카불 장악은 과거 전쟁에서 한 나라의 수도를 점령할 때와 같은 전략적·군사적 중요성이 없다.”⁴⁾고 밝힌 바 있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여론은 테러와의 전쟁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런 카불 함락에 따른 치안유지 부담으로 전선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현재 1,000여명의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 병력이 아프간 남부에 투입돼 특수차량으로 움직이면서 탈

레반과 알 카에다 지도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장소에 점문소를 설치하고 산악지대에 매복해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군의 패퇴는 미국의 공습목표와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와 그동안 북부지역의 주요 시설과 병력에 집중되었던 것으로부터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지휘부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남부지역 동굴이 주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군 대변인 몰라 압둘라는 “미국은 절대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할 수 없다. 그는 미국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맹세했다.”고 파키스탄의 「아프간 이슬람통신」이 전했다.

그럼 여기서 미국 테러참사의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테러조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배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떤 이유로 미국에 있는 세계정 치권력과 세계경제권력의 중심적 상징을 테러대상으로 선택하였을까 하는 점을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사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번 미국의 테러참사는 막을 수 없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탑승객에 대한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검색절차에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과 한국의 안보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II. 美國 9·11 테러참사의 國際關係史的 배경

1.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이슬람 과격파 테러조직의 저항 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Pax Americana시대의 도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미국 주도의 탈냉전시대 도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체제/질서(International System/Order)의 성립과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자에 따라서 국제정치체제의 형성과 변천과정의 구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포

랑스 솔르본대학(Universit de Paisl-Sorbonne)의 뒤로셀(Jean Baptiste Durosell) 교수⁵⁾ 와 미국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의 까리에(Ren Arbrecht-Carri) 교수⁶⁾의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정치체제의 형성은 서구에 근대국가가 생긴 이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 나폴레옹(Bonapart Napoleon)의 등장으로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Metternich)가 주도하는 1815년 비엔나회의(Vienna Congress)에서 최초의 유럽협조체제인 '비엔나국제정치체제'가 형성되었고,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를 빌미로普法전쟁 이후 독일제국을 통일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에 의해서 비밀동맹을 통한 세력균형론에 따르는 국제정치질서로 바뀌었다. 또한 '비스마르크국제정치체제'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Wilson)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적 베르사이유(Versaille)국제체제 속에서 국제연맹의 탄생에 의한 집단안보와 민족자결주의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나타났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후 미·영·소가 주도하는 '알타(Yalta)국제정치체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제2차 세계대전후 이루어진 '알타국제체제'가 어떻게 곧바로 '냉전국제체제(Cold War International System)로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냉전체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소봉쇄정책을 낳았으며 그것이 마침내 소련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게르만 민족의 제3제국(The 3rd Empire of Germans) 건설을 위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킨 독일의 히틀러(Adolf Hitler)는 1945년 5월 자살했고 1940년 제2의 로마제국(The 2nd Roman Empire)을 건설하겠다고 에디오피아와 알바니아를 침범했던 무솔리니(Benito Mussolini)도 게릴라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1910년 한국을 합병하고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대동아공영권(The Great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건설을 명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일본의 도오조(東條英機)도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裕仁) 日王이 항복함으로써 추축국에 의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한편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공격으로 대독(對獨) 선전포고고를 한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과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대일(對日) 선전포고고를 한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그리고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러시아 침공으로 대독전을 시작한 소련의 스탈린(Joseph Stalin)은 긴밀한 협력과 연합작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각국의 세력확대와 전쟁보상을 놓고 이해갈등은 날로 심화되었으며 드디어 냉전체제(Cold-War)로 양극화되

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미국과 소련간에 이념적, 체제적 갈등이 대결양상으로 확산(escalation)되는 동서냉전의 기원이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 냉전이 노골화된 국제적 사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원폭의 위력으로 日本을 단독 점령함으로써 소련의 일본분할 점령의도를 분쇄하고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근간이 된 소련의 남진을 막았으나 끝내 韓半島는 분단시켰고 한국전쟁을 잉태하게 된다. 소련은 동구권의 소비에트 위성국화에 이어 이란·그리스·터키의 공산화를 시도하자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으로 이를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미소 대립이 가속화되었다. 이어서 서유럽국가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마셜계획(Mashall Plan)과 이에 대응한 소련의 코민포럼(ComInform) 형성으로 갈등이 가중되었다. 또한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화정변에 성공했으나 유고슬로비아 티토의 이탈(Titoism)의 기미가 보이자 스탈린는 그의 공산세계 종주권 과시를 위한 소련의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를 일년간이나 지속했으나 미국은 맞대결을 피한 채, 대공수(Big Airlift operation)작전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이에 놀란 서방세계 국가들이 소련세력 확산을 막으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결성으로 서방세력이 공고화 되었다. 이에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Varsawa Pact)로 100만 이상의 병력을 유럽전선에 배치시켰으며, 1949년 毛澤東의 中國대륙 석권 등으로 아시아지역에서 공산세력이 확대되면서 동서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러, 끝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열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소련봉쇄정책(Sovite Containment Policy)'을 더욱더 강력히 수행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체제(Cold War System)는 변질되어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冷戰(Cold War)체제는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끝난 후 스탈린이 죽고 후루시초프(Nikita Khrushchtchov)가 등장하면서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tnik) 발사성공후 자신감속에서 맑스(Karl Marx)의 전쟁불가피론에서 1962년 평화공존론(Peace Co-Existance)에 의한 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1972년 미소간에 전략핵무기제한회담(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으로 화해협력(Détente)체제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나 1979년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nev Doctrine)에 의한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新冷戰(Neo-Cold War)체제로 다시 동서간에 긴장이 초래되었었다. 다행히 브레즈네프의 사망과 연이은 소련의 지도자 유리 안드로포프(Andropope)와 체르넨코(Chernenko)의 사망에 이어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Mihail Gorbachev)의 등장으로 신화해(Neo-Détente)체제가 되었으나 그의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정책

(Perestroika Policy)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억압되었던 자유와 민족주의가 분출되면서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국 주도의 脫冷戰(Post-Cold War)체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갈등과 대결속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추구하던 '대소련봉쇄정책'이 마침내 승리를 가져와 Pax Americana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나. 미국의 이스라엘 우대 중동정책과 이슬람 과격테러집단의 저항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체제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대신해서 중동지역에서 최강의 외세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건국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아랍제국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지역에 건설한다는 발상 때부터 분쟁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옛 나라의 땅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 지역을 식민지배하던 영국도 1917년 당시 외상이던 발푸르 선언(Balfour Declaration)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한 것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은 5만 6,000명에 불과했고 아랍인구는 60만명 이상이었으나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마찰이 시작되었고 기존의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고, 1936년부터 아랍 원주민들의 대대적인 반유대인, 반영국 무력투쟁이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영국은 이스라엘 건국에 제동을 걸려 했으나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의 학살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을 등에 업고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 것이다.⁷⁾

이스라엘은 건국후 주변의 아랍국가들과 4번에 걸쳐 큰 전쟁을 치루었는데 아랍국가들은 모두 패배했고, 그 패인이 미국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은 사실상 격리된 상황에서 생활했으나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ain Liberation Organization)가 나세르(Nassar)의 주도로 창설되면서 저항운동이 조직화 되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외교관계에 의한 분쟁방법으로 뚜렷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행사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촌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과 좌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이슬람사원에서 듣는 과격분자들의 설

교가 더욱 매력적이고 위로가 되었다. 이들은 이집트 지하드(Jihad)조직에 의한 사다트(Sadat)압살을 그들의 성공적 사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세르의 이집트 사회주의 실패로 다음 대통령이 된 사다트는 미국 자본주의와 협력으로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978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카터 전 미대통령의 중재하에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별장에서 맺음으로써 세계적 영웅이 되었으나 그들이 신성시하는 알 아키와 사원을 이스라엘지역에 내어주었다는 비난과 함께 이슬람의 과격조직 지하드(Jihad)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혜택을 본 것은 부패관료들로 이집트는 오히려 서구식 부유층과 더욱 좌절된 빈곤층으로 갈라놓았다고 반발하고 반미감정이 날로 심화되었다.

한편 1979년 이란의 혁명으로 팔레비왕이 망명하고 호메이니에 의한 이슬람공화국이 선포되면서 그 혁명의 열기가 확산되고 과격한 이슬람세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이슬람세계 전체를 끌어들이어 아랍 22개국 3만명의 지원병들이 몰려와 침범한 소련 이교도들과 싸움을 계속하였다. 여기에다 미국이 대공미사일 스타저(Stinger Missile)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은 10년간 1만 5,000명의 사망자와 3만 5,000명의 부상자를 낸 채 탈레반의 저항에 못이겨 물러나고 말았다. 소련과 전쟁에서 아프간 전사들인 탈레반의 승리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무력항쟁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소련의 아프간 점령시 재정지원과 무기공급으로 북부파키스탄 페샤워(Peshawar) 지역에 본부를 두고 중동 각지역에서 몰려온 이슬람 전사들을 높은 월급을 주면서 게릴라전과 폭탄제조법 등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집트, 튀니시아,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알제리아, 이란, 이라크 등에서 온 수많은 전사들은 1989년 소련군 철수후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일부는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탈레반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미국을 사탄으로, 싸워야 할 적으로 반미투쟁을 일삼았다. 특히 이들은 걸프전 후에도 미군이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계속 주둔하자 이슬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반미활동을 계속하였다.

탈레반의 지도자 무하마드 오마르(Muhammad Omar)는 1996년 쿠데타로 부르하누딘 람바니 정부를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 ☞

1) Bill Clinton, "테러전쟁은 미국이 노예제등의 죄값을 치루고 있는 것" 클린턴 전대통령의 모교인 Georgetown 대학에서 강연내용(중앙일보, 2001년 11월 9일)
 2) George W. Bush, "테러는 인류의 적, 그대로 두지 않을 것" 9. 11 테러참사 이후 부시 미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내용(동아일보, 2001년 9월 12일)
 3) George W. Bush, "미국인이여 뭉치자" 부시 미대통령이 테러에 관한 두번째 대국민 연설내용(동아일보, 2001년 11월 12일)

4) Ibid
 5) Jean Baptiste Duroselle, "L'Europe, de 1815 a nos jour"(Paris, PUF, 1975)
 6) Rene Abrecht-Carrie,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7) 박찬기, "아랍의 과격파와 세계 테러위기" 국방대학원 추계 세미나 발표문(2001년 11월 14일) 참조